

# 經濟發展과 人口問題

——家族計劃을 中心으로——

尙 戊 達

(大邱大學·副教授)

## 차 례

### I. 序 言

### II. 後進國의 人口問題概觀

### III. 不足되는 資本 및 投資 食糧과 人口問題

### IV. 家族計劃의 必要性

### V. 家族計劃의 實態

### VI. 結 言

## I. 序 言

지금 우리나라는 人口增加의 過大로 말미암아 國民經濟의 全般에 걸쳐 큰 威脅에 直面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人口增加에 따르지 못하는 食糧의 不足이 經濟의 成長과 그 安定마저도 威脅하고 있음을 體驗하고 있다. 하기에 이러한 人口增加의 問題는 오늘날의 世界에 있어서 비단 우리나라에만 局限된 問題는 아니며 온 世界가 共通된 難題로 맞보고 있고 또今日の 歷史的 課題로 登場하고 있는 問題이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입과 두개의 손을 가진 存在이다. 입에 置重해서 말할 때에는 生活必需品를 비롯한 消費財貨의 總量이 人口에 比較해서 얼마나 있어야 하는가를 重要視하게 된다. 특히 韓國과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먹는 입이 많다는 것이 굶주림을 加重케 하는 커다란 위험이 된다.

여기서 人口問題에 대한 觀點은 人口增加의 結果가 食糧의 不足과 貧困의 加重을 더하게 할 것이라고 보는데서 착한다. 이 觀點위에 설 때에는 人口增加는 언제나 비관적인 자료를 가져 오기도 한다.

人口問題를 가장 먼저 本格的으로 取扱하기 시작한 T.R. Malthus(1766~1834)는 1798년에 發行한 그의 人口論「An Essay the Principle of Population」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人口는 1. 2. 4. 8.와 같이 幾何級數의 으로 增加하는 傾向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傾向을 阻止하는 障害가 없다고 하면 人口는 25年마다 倍加한다. 그러나 食糧의 生産은 收穫遞減의 法則이 作用하므로 1. 2. 3. 4.와 같이 算數級數의 으로 밖에 增加하지 않는다. 따라서 道德的인 抑制을 충분히 하지 않고서는 罪惡과 貧困을 벗어날 수는 없다.」 즉 여기서 이른바 그의 人口法則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人口增加를 阻止하지 않는 限 社會의 改善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主張하였다. 生産規模는 적고 人口增加는 엄청나게 進行되고 있던 當

時에 있어서는 일손보다도 먹는 입이 問題의 焦點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함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道德的 抑制에 의해서 人口增加를 阻止하려고 하는 말썽스主義는 後에 新말썽스主義로서 産兒制限의 運動으로 展開 되었다.

地球위에는 요새도 날마다 25萬名씩 새 食口가 탄생되고 있다. 1년에 9千萬名씩인데 그중에서 죽고 남은 自然增加는 4千 3百萬名으로 되어 해마다 韓國總人口의 2倍 가량씩이나 人口가 增加하고 있다. 卽 이대로 人口가 늘어 가다가는 2690년까지에는 人間이 온 地球위의 地表를 完全히 덮어버리고 말것이라고 計算한 사람까지 있었다. 여기서 A-bomb(原子彈)이나 H-bomb(水素彈) 아닌 P-bomb(人口爆彈)이란 위험한 말이 나오기 까지 하는 것이다.

## II. 後進國의 人口問題概觀

後進國의 人口問題를 概觀하건대 後進國의 大部分은 近來 急速한 人口增加를 나타내고 있다. Asia 全般에 걸친 人口增加率は 中共和 같은 主要나라의 資料蒐集困難으로 確實性있게 算出키 어려우나 韓國, 台灣, 比國, 泰國, 馬來, 인도네시아, 터키, 이스라엘, 세이론 등 Asia 의 大部分의 나라는 지난 數十年間 高率의 增加를 示現하였다.

印度, 파키스탄에서는 最近 30年間에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그다지 높지않으나 絕對數에 있어서는 依然 큰 數字의 增加가 있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諸國에서의 人口增加率は 過去 數十年間 特히 빨랐다. 1920年以來 이地域의 거의 모든 나라가 每年 平均人口 千에 대해서 20名의 比率로 增加했다. 特히 멕시코, 엘살바돌, 페토리코, 베네주엘라等 諸國은 過去 數十年間에 自然增加率이 人口 千에 대해서 30名이나 되었는데 萬一 이 增加率이 繼續한다면 앞으로 33年以内に 倍加하게 되는 셈이다.

아프리카의 北部及 南部地域도 現在 急速한 人口增加地域이며 東南歐羅巴의 後進諸國 또한 相當한 人口成長을 보이고 있다. 人口成長은 大部分의 後進國家의 經濟發展에 대해 큰 支障이다. 왜냐하면 손쉽게 開發할 수 있는 生活手段에 比해서 人口는 너무 커졌고 또 人口成長自體는 國民所得에 대해 追加需要를 일으킬 뿐 아니라 生活水準向上에는 何等 寄與하지 않는 不必要한 投資를 強要하기 때문이다. 例컨대 G.H. Bousquet에 의하면 投資選擇問題에 있어서 브라질같은 나라에서는 每年 增加하는 人口(25%) 때문에 食糧增産에 더 優先的으로 投資를 돌리고 있다한다.

美國人口委員會의 家族計劃事業調查團이 作成한 韓國家族計劃事業調查報告書는 普通 出生率 40 以上을 普通死亡率은 또한 極히 推測의이나 11~14間으로 推定하였으며 館稔博士의 韓國家族計劃運動調查報告書는 普通死亡率 14 普通出生率 40以上을 假定하였다. 이 두가지의 推定動態率은 센서스의 人口年齡構造와 關聯시키면 다같이 지나치게 低率이다.

一般的으로 여러研究에서指摘된 바와같이 死亡水準이 어떻게간에 死亡豫防計劃은 現世紀間 漸次 加速度로 急速히 進行되어 왔다. 出生時 生命餘命의 年間 0.5年 增加는 現在 正常的의 傾向이라 하겠으며 最少限 出生時 生命餘命 50年내지 55年間에 대하여는 그러하다. 出生時 生命餘命 55年~65年에 대하여는 通常 이 水準에서는 乳兒死亡水準과 小兒死亡水準의 현저한 低下가 있는 까닭에 生命餘命의 年間增加는 0.5年 보다 若干 더 크다. 1960年~1980年間과 같은 短期間에 死亡水準과 出生水準間에 相關關係가 있을 必要는 없을 것 같다.

事實上 出產水準의 低下는 死亡水準이 아직도 높았을 때나 혹은 死亡水準이 相當히 低下하고 있거나 또는 低率일 때 各各 여러國家의 人口에서 發生하였다. 人口成長率이 相當히 高率일지라도 20年과 같은 比較的 短期間에는 이러한 高率이 繼續될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表 1〉

ECAFE地域과 其他 選定된 國家의 動態率과 出生時 生命餘命

	1954~56 普通出生率(‰)	1954~56 普通死亡率(‰)	1954~56 乳兒死亡率(‰)	1950~55 男女出生時 生命餘命(年)
<b>E C A F E 地域</b>				
英 領 보르네오	46	29	253	29
버 어 마	44	29	221	34
캄 보 디 아	47	23	179	40
세 이 론	42	14	128	54
中 國 (本 土)	37	17	—	—
自 由 中 國	45	10	100	55
香 港	38	8	—	—
印 度	40—43	27—31	200	35
인 도 네 시 아	43	24	192	39
日 本	19	8	50	66
라 오 스	46	28	222	34
마 라 야	41	12	89	59
파 키 스 탄	50	30	200	35
比 律 賓	49	21	166	41
싱 가 폴	48	9	49	63
泰 國	47	22	179	40
越 南	43	22	—	—
<b>라틴 아메리카</b>				
브 라 질	45	20	150	45
칠 리	40	12	119	52
멕시코	46	13	125	50
베네주엘라	47	20	150	45
<b>經濟的先進國</b>				
濠 洲	22	9	22	71
佛 國	19	12	38	68
英 國	16	12	26	71
美 國	25	9	26	71

資料 : Toshio Kuroda, 世界의 人口 (World Population) 東京, 1960年

出生水準의 低下가 發生하였거나 進行中인 곳에서는 低下의 開始와 그 速度는 經濟的 및 文化的 環境의 混合要素에 의하여 決定되는것 같다.

過去의 記錄에 비추어 보면 出生水準의 將來趨勢는 家族計劃政策이 效果的으로 遂行되지 않는 限 많은 經驗이 提示하여 온바 大體로 後進國에서는 過去傾向의 繼續으로서 看做된다.<sup>1)</sup>

오늘날 우리나라의 人口增加率은 年 2.88%로서(해마다 大邱市民(70萬名)만한 人口가 늘어가는 셈이다. 서울만 해도 每時間當 7名이 出生되고 3名이 죽어간다고 한다.

後進國가운데서도 比較的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人口密度는 和蘭, 白耳義, 台灣, 日本 韓國(168名)의 順位로서 世界第5位를 차지하고 있고 다시 農地人口密度로 본다면 日本 다음으로서 世界 第2位인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經濟의 未開發狀態를 意味하는 것

1) 經濟調査 1963, 9. 經濟劃院 p. 13參照

이며 이는 또한 人口密度가 우리나라 보다 높은 나라들도 1人當 國民所得에 있어서는 韓國보다 훨씬 높은 水準에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政府에서 發表한 統計에 의하면 1960年度의 失業者數는 43萬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여기에 農村의 潛在失業者를 加算한 統計를 보면 250萬을 넘는 엄청난 數에 達하여 이는 24.2%의 失

〈表 2〉

世界各國의 人口推移

單位: 百萬人

國 別	最近國勢調査		中央人口推計			年 平 均 增 加 率 (%)	密 度 (km <sup>2</sup> 當人)
	年 度	總人口	1961	1962	1963		
印 度	1961	434.9	441.6	453.1	463.1	2.2	138
소 련	1959	208.8	218.0	221.5	225.5	1.8	10
美 國	1960	179.3	183.7	186.6	189.8	1.7	20
日 本	1960	93.4	94.1	94.9	95.8	0.9	254
英 國	1961	52.7	52.9	53.4	53.8	0.7	217
伊 太 利	1961	50.5	49.5	50.2	50.6	0.9	164
佛 蘭 西	1962	46.5	46.0	47.0	47.5	1.0	83
比 律 賓	1960	27.5	28.7	29.3	30.2	3.3	96
泰 國	1960	26.3	27.2	28.0	28.8	3.0	53
韓 國	1960	25.0	25.4	26.1	26.9	2.9	258
버 어 마	1961	16.8	21.5	23.2	23.7	2.1	32
台 灣	1956	9.4	11.0	11.3	11.8	3.7	305

資料: UN. Statistical Year Book, 1963.

註: 1962년까지의 既增加率을 使用하였음.

業率을 보이는 것이다. 그와같은 엄청난 失業率은 그 自體만으로도 하나의 심각한 問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表 3〉

1945年以前の 韓國의 人口成長

	總 人 數	韓 國 人	人 口 密 度 (平方杼當)	人 口 成 長 率 (韓國人)
1 9 2 5	19,522,945	19,020,030	88	—
1 9 3 0	21,058,305	20,438,108	95	14.5
1 9 3 5	22,899,038	22,208,102	104	16.7
1 9 4 0	24,326,327	23,547,465	110	11.8
1 9 4 4	25,900,142	25,120,174	117	16.3

資料: 統計年鑑 第10號 1963年 經濟企劃院調査統計局.

그리고 産兒制限을 하지않는 限 政府가 發表한 2.88%의 率로만 計算하여도 南韓人口는 1967년에는 3,000萬 今後 10년이 지난 1977년에는 4,000萬 今後 8年만에 卽 지금부터 20年後인 1985년에는 드디어 5,000萬을 突破하게 된다.

오늘날 韓國의 1人當 國民所得은 78弗(美國 3,221弗)을 넘지 못하고 있는 低所得水準에 있는 것이다. 1985年에 南韓人口가 5,000萬을 突破하게 되는 것을 豫想하면 非常한 速度의 經濟發展없이는 우리는 점점 더 구차하게 살아야 함을 意味한다. 卽 現在 年間 每人當 國民所得이 78弗에 不過한 가난한 生活를 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귀속된 78弗에 해당하는 食

〈表 4〉 韓國의 人口(1964年—1960年)

	人 口	人口密度 (平方料當)	人口成長率
1944	16,244,000	174	—
1949	20,166,756	215	442
1955	21,502,386	218	10.2
1960	24,994,117	258	28.8

資料：統計年鑑 第10號 1963年 經濟企劃院 調査  
統計局

안된다. 그라고 4倍以上의 生産이 可能하다 손치더라도 그다지 빠른 速度의 經濟發展도 못되며 자랑할 것이 못된다.

우리와 같이 後進國에 속하는 필리핀이나 세이론과같은 나라들도 1958年의 每人當 所得이 각已 152弗과 137弗인데 比해서 지금부터 20年後인 1985년에 가서야 겨우 우리의 每人當 所得이 156弗이 된다고 한다면 國際經濟社會에서 落伍者가 될 것이므로 經濟發展에 注力을 기울려야 함은 勿論 家族計劃의 必要性을 느낀다.

### Ⅲ. 不足되는 資本 및 投資 食糧과 人口問題

國內資本이 脆弱하므로 外援과 外國資本에 依存해야하는 韓國의 現實을 생각할 때 限定된 資本으로 1人當所得을 높일 수 있는 길은 高率의 人口成長率을 低下시키는 것이 切實함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1人當 GNP의 增加를 經濟發展의 實質成長이라고 본다면 人口增加를 考慮하지 않은 GNP의 成長率이 人口增加率보다 높지않는 限 國民經濟는 發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退步되는 것이다.

表6에 있는바와 같이 지난 1954年~1960년에 이르는 7年間 韓國의 GNP는 4.6%의 成長을 보이고 있는데 人口는 年 2.88%로 增加되어 1人當 所得은 年當 約 1.8%로 增加한 셈 된다. 이처럼 GNP 4.6%라는 率로서 增加함에도 不拘하고 1人當 所得이 不過 1.8%밖에 增加하지 못한것은 높은 人口增加率 때문에 經濟成長部分이 吸收된 까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GNP에 대한 國內總投資率을 보면 年平均 12.5%에 達하고 있다.

한편 GNP의 成長率은 年平均 4.6%였으므로 資本係數는 2.7이 되는 셈이다.<sup>1)</sup>

投資는 (1) 現在의 生活水準을 繼續維持하기 위해서 成長하는 人口의 需要에 대해서 投資하는 人口投資와 (2) 現在의 生活水準을 좀더 向上 시키기 위해서 投資하는 經濟投資의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兩者는 嚴格한 區別을 要한다. 人口投資의 規模는 人口增加率에 의해서 決定된다. 急激한 人口成長을 가진 後進國에서의 人口投資는 모든 可用資本이 現在 生活水準維持에 몽땅 蠶食되어 버리고 經濟發展을 漠然하게 만들 憂慮가 있다.

UN의 推計에 의하면 1%의 人口增加에 要하는 資本을 供給하기 위해서는 2%乃至 5%의 國民所得이 貯蓄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人口成長率을 年 2.88%로 假定하여도 韓國에 있어서의 낮은 現在의 生活水準을 維持하기 위하여서만도 年間 6~15%의 經濟成長率을 確保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韓國에 있어서의 國民所得成長率은 얼마만큼이나 되는 것인가?

糧과 日用品에서 增加하는 새 人口에게 食糧과 그밖의 日用品을 割讓하면서 살아가 되니 우리의 生活이란 78弗보다 下廻하는 人間以下의 生活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意味한다. 現在와 같은 人口增加率로서는 現在人口의 倍 即 5000萬이 되는 1985년까지 우리의 每人當 所得을 2倍로 올리려면 現在보다 4倍나 더 生産하지 않으면

〈表 5〉 韓國의 人口雇傭 및 失業  
單位：千名

總 人 口	24,694
生産年齡人口	13,878
非 勞 動 力	3,484
勞 動 力	10,394
雇 傭	7,877
失 業	2,517

資料：經濟企劃院 1960年

1) 公州敎大論集(第1輯) p. 94 參照.

〈表 6〉

經濟成長率 및 國內總投資率

年	度	GNP成長率(%)	國內總投資率(%)	國內分擔分(%)	海外移轉分(%)
1	9 5 4	5.2	13.2	4.4	8.8
1	9 5 5	4.0	13.0	3.5	9.5
1	9 5 6	0.3	8.0	-9.0	17.0
1	9 5 7	8.7	15.1	5.4	9.7
1	9 5 8	7.0	13.3	4.3	9.0
1	9 5 9	5.2	12.7	8.8	3.9
1	9 6 0	2.1	12.4	5.9	6.5
平	均	4.6	12.5	3.3	9.2

資料：韓國銀行 調査月報 第16卷 4號 p. 25 參照.

韓國銀行 調査部 經濟統計年報(1966. pp. 14~15)에 위하면 1953年~63年의 年平均 國民所得成長率은 6.2%가량으로서 이와같은 成長率下에 있어서 人口가 年 2.88%以上 增大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니 經濟成長에 미치는 人口形相은 逆轉의으로 되기 쉬우며 매우 重壓으로 느끼는 것이다.<sup>1)</sup>

Clark에 의하면 첫째 1人當 所得이 增加하면 資本對 所得의 比率로 增加하고 둘째 모든 資本增加는 國內貯蓄의 結果이며 셋째 人口는 不變이라는 假定下에 年間 所得을 2%增加시키는데 要하는 年間貯蓄率은 美國같은 先進國에서는 國民所得의 約 3%이고 印度같은 後進國에서는 約 8%라고 한다.<sup>2)</sup> 그리고 年間 人口成長率이 1%라고 假定하면 必要한 貯蓄率은 先進國에서 7% 後進國에서 13%라고 한다.

上述한 바와 같이 萬一 人口成長이 높을 때 1人當 實質所得 增加를 위하여 必要한 投資資本은 더욱 增加 해야 되고 反對로 人口 增加率이 낮으면 낮을 수록 所要 資本이 적어질 수 있으며 可用資本이 一定할 때에 人口成長이 낮을 수록 1人當 所得이 增加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急激하게 膨脹하는 食口를 먹여 살리는 食糧 生産은 어찌되는가를 보면 지난 10年間の 食糧 生産推移(1948年~1958年)를 들여다 보면 1948年의 食糧生産量은 米穀 1천 5백 11만섬 雜穀 7백 69만섬 도합 2천 2백 만섬인데 1958年의 食糧生産量은 米穀 1천 6백 60만섬 雜穀 1천 12만섬 도합 2천 6백 72만섬으로 392만섬(17.2%)의 增加에 不過하다.

그러나 同期間의 人口 增加率은 4百12萬名으로 20.4%(1949~1959年)의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어 食糧不足의 補充을 外穀導入에 依存해야 만 했다. 年間 平均 3백 만섬의 外穀이 導入됐는데 大凶年이 들었던 63年에 前例없이 1億1千2百75萬 달러어치의 外穀을 援助 및 購入으로 導入함으로써 간신히 飢饉을 면했다. 그리고 韓國銀行 調査月報 1962年 4月號<第7表>에서 보면 1960年에 이르는 7年間に 있어서의 年平均 2,503萬石 이라는 穀物生産量은 연에나 需要量에 未達하고 있고 穀物生産의 年增加率은 -11.0%로 부터 11.2%라는 커다란 起伏을 보이면서 平均 1.3%라는 數字를 보여 주고 있다.

穀物生産은 天候條件에 의해서 그 수확고가 左右되기는 하지만 人口增加率 2.88%와 比較해 볼 때 穀物生産의 年增加率이 1.3%밖에 안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食糧需給의 成長이 얼마나 不均衡 한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1963年度의 外穀導入量은 金額으로 따져 그 當時 總收入額 5億6千萬「달러」의 20.1%

1) 中央大學校 論文集(第10輯) p. 151. 參照.

2) 大邱大論文集 第2輯 p. 281. 參照.

〈表 7〉

食糧需給表(Ⅱ)

(萬石)

年次	穀物生産量	對前年 增加率(%)	輸 入	輸 出	穀物消費量	人 口	1人當穀物 消費量(石)
1955	2,443	(-1.5)	66	—	2,509	21,526	1.17
1956	2,175	(-11.0)	347	—	2,522	22,146	1.14
1957	2,418	(11.2)	666	—	3,084	22,784	1.35
1958	2,639	(9.1)	668	—	3,307	23,440	1.41
1959	2,704	(2.5)	184	—	2,888	24,115	1.20
1960	2,641	(-2.3)	323	18	2,946	24,994	1.18
平 均	2,503	(1.3)	376	3	2,876	23,067	1.24

※ 資料：한국은행조사월보 1962年 4月號 p. 28.

에 해당했고 우리가 輸出로 번 外貨 8千6百80萬달러를 外穀導入에 쓴다고 해도 2千5百59萬달러나 不足한 것이었다.(美剩餘農産物 援助와 政府保有 달러로 導入)

이와같이 高率의 人口가 持續되고 農業構造를 改善하지 않는 限 現在 우리나라의 食糧増産은 2.88%까지 올린다고 하는 것은 相當히 어려운 問題이다. 몇해前에 保社部가 서울 인천 대구 부산에 등록된 2百80萬의 구조대상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調査結果「아침 저녁 끼니를 집에서 못 끓였다」는 사람이 무려 76만명(28%)이나 됐으며 이들 要救護對象者의 가난한 理由는 家口主의 失職 34.6% 家口主의 疾病 18.4% 일할 사람이 없음 16.7% 食口가 많다 12.5% 등으로 判明됐다.

이와같은 심각한 生活難이 改善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人口가 暴發的으로 膨脹한다는 것을 생각만해도 거듭 家族計劃의 必要性을 느낀다. 또한 보다 많은 資本을 農業에 集中하고 技術的인 改善과 耕作面積擴張을 위한 開墾에 힘써 人口扶養이 達成된다 해도 이를 위한 投資資源의 調達때문에 工業化의 遷延이 相對的 問題로 提起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 Ⅳ. 家族計劃의 必要性

가정에 있어서도 一般的으로 生活費, 保育費, 教育費가 높아져 가고 있는 現代에 있어서 子女의 數가 많으면 많을 수록 父母의 負擔은 감당키 困難해 지며 따라서 限定된 땅과 食糧供給能力을 생각할 때 扶養도 없는 國土資源條件과 經濟計劃 아래 있는 國家일수록 人口増加는 警戒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勞働者 1人當 月平均 收入이 5人 家族의 最低 月間 家計의 절반 밖에 안되는 우리나라의 實情은 더욱 家族數의 增加가 生活의 위협에 直面되므로써 産兒制限의 必要性이 切實해진다. 또한 家族의 數가 많으면 많을 수록 생활의 指數가 높아지며 따라서 食糧, 衣服, 住宅 以外の 教育 保育 等 人間生活에 絶對 不可缺少한 要素가 缺乏되어 이러한 不安定한 環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一般的으로 肉體의 精神的으로 健全한 發育을 하기 어렵게 되며 幸福한 家庭의 營爲가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社會에 害를 끼치게 되는 것이 事實이다. 다시 말하면 人口의 過剩이 반곤과 社會惡의 原因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서 現代의 世界的인 潮流는 社會經濟的 問題와 아울러 第二世 國民의 質의 向上을 위하여 産兒制限은 必須條件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살림에 無制限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不請客처럼 눈살을 찌푸리고 먹을 것이 없어우는 아이를 볼 때 愛情과 귀여움속에서 자라야만 할 어린生命이 榮養失調과 虐待가운데 자라는 이런 環境에서 浮浪兒가 되고 失業者로서 타락하게 되어 남에게 依存하는 卑劣한人間으로 되어 버린다.

이와같은 人口가 많을 수록 무질서한 社會相을 續出케 함으로써 劣等國家 劣等民族으로 後進國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實情에 비추어 볼 때 人口問題는 確實히 重大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低開發地域일 수록 높은 增加率로 느는 人口는 一定한 期間 經濟成長을 阻害하는 要因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人間은 勞動力이라는 존을 가지고 있지만 同時に 먹어야 하는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人間은 全部 消費人口는 되지만 生産活動에 從事하는 人口는 消費人口보다 절대수에 있어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産業構成度가 낮은 地域에서 勞動의 限界生産力이 消費量을 下廻한다면 人口의 增加는 經濟成長의 阻止要因이 안될 道理가 없는 것이다.

事實 우리나라에서는 食口의 數爰는 하늘이 주는 것으로써 아이가 생기는대로 낳지 않으면 福은 減해 지고 罰을 받느라 알았으며 家族이 줄어드는 것을 섭섭히 하고 늘어나는 것을 기뻐했다. 그렇다면 韓國에 있어서의 多子多福은 무엇에 基因하는 것일까.

先進國中에서도 가장 높은 生活水準을 자랑하는 國家 例컨데 美國이나 英國에서는 弗貨나 磅貨의 價値가 거의 계속 유지되어서 平生의 저축이 老年을 保障할 뿐만 아니라 安定된 社會環境과 더불어 高度의 家庭生活의 機械化는 老夫婦라도 子女의 도움이 없이 足히 生活를 營爲할 수도 있으며 또 高度의 社會保障은 設備와 써비스가 完全한 養老院을 提供하기도 한다.

그러나 韓國과 같은 國家에서는 水道 電氣事情은 勿論 食糧 薪炭의 購入에 이르기 까지 苦勞는 比할데 없으며 더우기 低所得과 인프라進行으로 저축이 老年을 保障 못함에 있어서라.

그러므로 韓國에서는 '家父長의 家族制度에 立脚한 扎实的 老子老婦에 依存하여야만 餘生과 奉祭祀를 期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封建의 思想이 家族計劃보급을 阻害하기도 하는 것이다.'<sup>1)</sup> 그러나 우리는 無作定 生産된 量의 人口로서 他人에게 依存하지 말고 質의 向上된 人口를 가져야 할 것이며 規模있는 家族計劃은 生活安定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産兒制限을 함으로써 人口問題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全人口의 63%를 차지하는 農業人口를 가진 우리나라의 國民水準으로서는 産兒制限이 人口問題의 해결법으로 適用될 만한 人口論이라고 하기에는 容易한 問題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農業에 有利한 立場과 條件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農業 및 그 관계의 所得이 向上되지 않으면 國民所得은 向上 될 수 없을뿐 아니라 産兒制限을 할 수 있는 生活安定과 水準을 到達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K. Davis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있어서 理想的인 政策을 實施하려면 (1) 家族計劃의 強力한 推進 (2) 漸進的인 移民計劃 (3) 急速한 工業化計劃等的 세가지를 병행 實施해야 所期의 目的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하였고 W.S. Thompson은 共產化하기 前의 中國의 例를 들어 家族의 因習의 生活態度를 止揚하고 産兒制限의 實施을 위한 모든 準備가 갖추어질 때까지 工業化를 한다 해도 生活水準의 改善은 期待하기 어렵고 그런 준비에는 앞으로 數十年이 더 걸릴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人口조밀지역에 대한 大部分의 學者들의 共通된 合意點은 人口成長抑制策과 經濟 및 社會改革과는 二者擇一的인 性格을 가진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兩者를 併行 실시해야 한다는 點이다. 다시 말하면 産兒制限이라든가 移民은 經濟發展을 위한 諸政策의 補充策으로 實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反面에 이 見解에 대해 反對하는 學者들도 있다. 그들의 立場을 나누어 보면 첫째로 I.D Stamp 같은 이는 經濟成長에 대해서 처음부터 대단히 낙관적인 견해를 表明하고 人口成長의 완화



를 後進國의 經濟社會問題해결에 그다지 珍요한 條件으로 생각지 않았으며 物種종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大部分이 가톨릭敎의 立場에서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産兒制限은 종교적 도덕적 見地에서 反對하고 후진國의 經濟條件改善은 全世界의 協力으로써 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셋째集團에 속하는 사람들은 經濟發展에 극히 重視하면서도 生命의 존엄성을 設定하고 피임행위를 배격하는 社會概念을 採擇하면서 出生率의 감퇴를 위한 諸方策을 反對하고 나선다.

또한 一部 學者들은 産兒制限은 經濟的 文化的인 面에서 民度가 어느 程度 높은 水準에 達했을 때 비로소 可能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生活水準改善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家族制限은 性的 滿足과 家族의 만족 以外에도 生活의 樂이라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原始的이고도 빈곤한 나라의 國民들에게는 期待할 수 없는 克己心을 必要로 하기 때문에 그 實施가 困難視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産兒制限에 관해서는 各種學說이 있지만 宗教的 或은 道德的 論議點만을 無視한다면 그 學說間의 gap는 더욱 좁아진다.<sup>1)</sup> 過剩人口의 對策으로는 家族計劃 以外에 移民問題를 提示하나 移民에 의해서 人口를 減少시킨다는 것은 各國에서의 過去 實績으로 보아 유달리 확실했던중에게는 成果를 期待하기 힘든 對策이다. 韓國人口의 自然增加率을 2.88%라고 할때 해마다 70萬名以上の 人口가 增加되는데 오늘날 世界各國이 엄격한 移民法을 實施하고 있으므로 이만한 增加人口를 移民으로서 減少시킨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더우기 移民은 본래 生活水準이 낮은 地域에서 높은 地域으로 흘러가고자 하는 것이 原則이다. 生活水準이 낮은 地域으로는 가려고 하지 않는다. 또 移民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形便으로서의 낮은 生活水準의 國民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移民이 들어와서 자기나라 國民의 勞賃이 떨어지고 生活水準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移民이 人口成長의 抑制을 위한 다른 여러 方法과 함께 광범한 人口政策의 一部로서 重要な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事實을 無視할 수는 없다. 그리고 家族計劃의 提唱이 高調되어 가면서 한편에서는 逆淘汰의 위험을 우려하는 論者가 있다. 이제까지의 經驗에 의하면 出生調節은 그것이 期待되고 있는 下層社會에 보급되지 않고 도리어 上層社會에 보급되는 傾向이 있다. 여기에 逆淘汰의 現象이 나타나며 人口의 量的 制限은 必然的으로 質의 低下를 招來하게 된다고 主張하는 論者가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의 問題가 있다. 그 하나는 出產調節은 論者의 主張하는 바와같이 上層社會에는 보급되고 下層社會에는 보급되기 어려운 것일까 라는 것이다.

萬若 그렇지 않고 長期間에 걸쳐서 관찰한 結果 出產調節은 우선 上層社會로 부터 시작되어 漸次로 下層社會에 波及되며 궁극에 있어서는 下層社會에서 더욱 廣汎하게 보급 된다는 것이 實證된다면 論者의 우려는 杞憂에 不過한 것이라고 하겠다.

더 나아가서 所謂 上層階級의 素質은 우수하며 하층계급의 소질은 劣等하다고 認定한다 하더라도 前者의 出生率은 낮으며 後者의 出生率은 높다는 現實의 現象은 受胎調節이 普及되는 過程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며 그것이 社會全般에 廣汎하게 또한 深刻하게 普及된다면 먼저 말한바 所謂 하층계급의 出生率은 所謂 상층계급의 出生率보다도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 點으로 보아서도 逆淘汰를 우려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sup>2)</sup>

## V. 家族計劃의 實態

政府에서는 家族計劃 내지 受胎調節을 普及시키기 위하여 現在 保健所나 結婚相談所까지

1) 大邱大學 論文集 第2輯 p. 290. 참조.

2) 中央大學校 論文集 제5집 p. 121 참조.

受胎調節의 普及, 宣傳의 一翼을 擔當하게 하며 또한 生産을 도와야 할 助産婦에 까지 아이러니칼하게도 受胎調節 普及의 役割의 一端을 擔當시키려고 하거니와 심지어 빈곤한 家庭에는 피임기구를 無料로 配布하거나 또는 落胎를 피임으로 전환시키려고 努力하고 있는 것이다.<sup>1)</sup>

家族計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國家의 事業으로 시작되지 3년이 지났지만 이 事業이 차질을 나타내어 아직도 成果가 극히 부진하다는 事實이 밝혀졌다.

家族計劃事業을 主管하고 있는 保社部 母子保健課가 最近 整理한 1965年度의 「全國家族計劃 實態評價」가 調查結果 第1次中間報告에 의하면 現在 家族計劃을 實施하고 있는 사람은 不過 23% 實施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41% 그리고 方法을 몰라 못하고 있는 사람이 36%나 된다. 男便과 만 44歲까지의 부인이 있는 3천 4백 21가구를 서울과 부산을 비롯 全國 9個道에서 選定 165명의 家族計劃 指導員이 調査를 擔當한 이 實態調査에서 「家族計劃」自體를 알게된 經路를 頻度數로 나타난 것을 보아도 「메스콤」 「라디오」=頻度數 46 新聞=24 雜誌=16이나 이웃사람46에 의한 것이 있으며 事業擔當機關인 保健所에 의한 것은 頻度數 51에 不過했다는 것이 나타났다. 都市와 農村의 경우를 볼때 家族計劃을 贊成하고 있는 比率이 都市는 91.3%로 되어 있고 農村은 86.6%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 事業自體에 대해서는 原則의으로 찬성하는 것이라고 당국에서는 占치고 있다. 그러나 農村에 있어서 찬성률이 덜하다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뿌리깊은 封建的인 社會構造의 影響을 받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家族計劃의 實施率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숫자는 %)

實施 30.2(都市) 19.2(農村) 非實施(알고도) 35.8(都市) 43.2(農村) 이러한 事實은 가뜰이나 人口 自然增加率이 높은 시골에서 家族計劃을 등한히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으로 이것은 앞으로 特別히 注意를 要할 點이라고 되어 있다.

특히 方法을 몰라 家族計劃을 實施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全體의 3분의 1 以上이나 된다는 事實은 國家의으로 버리고 있는 이 巨大한 事業이 結局 形式的인 活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주고 있다.

당국은 이 調查結果를 昨年度와 對備해 볼 때 많은 進展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調查結果를 土臺로 얻을 수 있는 結論은 우리나라의 家族計劃事業이 惹慾의이 었던 첫걸음과는 달리 이제는 차질을 가져와 答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每

<表 8>

家族計劃을 알게 된 經路	
메스콤	86
라디오	46
新聞	24
雜誌	16
親 知	64
保健所	51

※ 保社部統計

<表 9>

家族計劃 實施率(%)		
實 施	都市	30.2
	農村	19.2
않는다 (알면서)	都市	35.8
	農村	43.2
몰라서	都市	34.0
	農村	37.6

※ 保社部統計

年 약 2億5千萬원이라는 莫大한 豫算이 投入되고 있다는 事實을 (전국189개소 家族計劃 相

1) 中央大學校 論文集 제10집 p. 158 참조.

談所) 감안해 볼 때 이 정도의 成果는 너무나 미미하다고 보아야 하겠다. 前述한 바와 같이 現在 우리나라의 人口 自然增加率は 年 2.88% 政府는 「家族計劃 10個年計劃」을 62年度부터 수립 目標年度인 71년까지에는 이 높은 人口增加率을 2.0%까지 낮추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當국은 每年 5月을 「家族計劃의 달」로 設定 家族計劃에 대한 集中的인 宣傳과 表 <10>

區 分	男 便 側 意 見		婦 人 側 意 見	
	家族計劃이란 말을 들은 일 있다	없 다	家族計劃이란 말을 들은 일 있다	없 다
全 國	78.4%	21.6%	71.0%	29.0%
市 郡	88.1%	11.9%	80.6%	19.4
其 他	75.4%	24.6%	68.0%	32.0%

資料：經濟企劃院 1964 經濟白書.

啓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月에는 國際家族計劃聯盟(I.P.P.F.) 西太平洋 地域會議를 서울에서 開催했었다. 이 國際會議가 끝난 뒤 우리나라 關係者들은 우리나라의 家族計劃技術이 어느나라 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立證되었다고 자랑했다. 그리고 實例로 지난 6月 印度의 家族計劃 高位關係者 10餘名이 2週口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訓練을 받은 바도 있다고 傳했다.

이와같이 政府에서도 努力을 기울이고 있고 技術도 우수한 우리나라 家族計劃事業이 이렇게 부진한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當局은 이에 關한 正確한 解答은 이번 調查結果를 専門적으로 분석한 뒤에야 나올 것이라고 前提하면서 <表 11>

① 人口動態 統計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事業效果를 測定할 수 없다는 點 ② 벽지에 의사를 파견하기 위한 經費의 不足 ③ 農村地方의 社會的 經濟的 與件(一部 無知한 農漁民들에게 아직도 多男多福 思想이 철저하게 뿌리박혀 있으며 「카톨릭」系統의 宗教團體에서 自然法에 대한 頑固한 觀念으로 反對하기 때문 이라는 點들을 들 수 있다) ④ 「메스미디어」 전달을 위한 交通과 通信의 不便들을 내세웠다.

끝으로 家族計劃을 위한 產兒制限의 具體的인 方案으로서 推進되고 있는 의학상의 技術面엔 男子의 精管手術과 女子의 子宮內 裝置等 두가지 方法이 있

理 由 別	構成比(%)
子女를 더 願한	60.8
年齡이 많아서	24.2
其 他	6.8
不妊 手術을 했음	2.3
健康上 害가 됨	2.0
男便 또는 家族의 반대로	1.6
人爲的 造作이 싫어	1.2
宗教의 理由에서	0.7
道德的 面에서	0.4

資料：經濟企劃院 1964年 經濟白書.

다는 데 이 두가지 境遇를 보면 亦是 子宮內裝置를 希望하는 사람이 더 많아 男尊女卑思想이 아직도 뿌리깊다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 이 事業을 推進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難關은 農漁村에서의 經濟問題와 結付된다. 山間벽지에서 實際로 手術을 받기 위해 保健所까지 가려고 해도 「버스」값이 없어 手術의 惠澤을 못받는다. 印度같은 나라에선 手術을 願하는 사람에게 交通費와 日當을 國家에서 支拂하는 積極策을 取하고 있는 것이다.

產兒制限에 關해서는 各種學說이 있지만 產兒制限을 自然發生的으로 일어나도록 放任하여야 하느냐? 人爲的으로 勸誘하느냐? 或은 產兒制限에 있어서 國家干涉이 得策이냐 아니냐? 그리고 國民들이 큰 反對없이 產兒制限을 實施할 經濟段階에 到達했느냐 아니냐하는 問題等에 또한 避妊行爲의 傳播를 全적으로 禁止시켜야 한다는 主張과 그런 避妊行爲를 政府가 積極的으로 勸獎하여야 한다는 主張사이에도 여러가지 中間的인 見解가 있다.

〈表 12〉

理想的 子女數

(%)

子 女 數	男 便 側 意 見				婦 人 側 意 見			
	市 郡		其 他		市 郡		其 他	
	아 들	딸	아 들	딸	아 들	딸	아 들	딸
1 人	4.6	58.5	1.6	39.8	5.0	58.2	1.7	37.5
2 人	55.0	39.0	48.4	55.3	66.0	38.3	44.6	58.1
3 人以上	50.4	2.5	50.0	4.9	29.0	3.5	53.7	4.4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經濟企劃院 1967 經濟白書.

避妊에 있어서 너무나甚한 外部干涉은 往往 逆效果를 낼 憂慮가 있으므로 그 勸獎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集團의 道義心에 急激한 變動을 招來하지 않을 程度로 自發的인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 VI. 結 言

後進的인 產業構造의 變革을 漸進的으로 力行하고 早速히 經濟自立을 確立하기 위해서는 全民族의 總力量이 이에 遺憾없이 發揮되어야 함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이와 併行해서 後進國은 現在의 出生率과 死亡率과의 差異를 減縮시키기 위해 產兒制限의 方法을 實施할 것이나 一般的으로 出生率의 減少는 死亡率의 減少보다 더 어려운 問題를 內包하고 있다. 그것은 死亡率은 現在 保健施設의 改善과 훌륭한 醫療技術의 發達로 急速度로 減少過程에 있는 것이다.

要컨데 家族計劃은 過剩人口로 허덕이게 될 韓國의 現狀으로 보아서 不可避의 要請이라고 할 수 있으나 手段을 選擇함이 없이 非論理的인 非文化的인 方式으로 이것을 實行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死亡率의 低減方策이 아름다운 指導理念에 基因되어 있는 것과 같이 出生率의 引下方策도 아름다운 指導理念에 背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即 避妊에 있어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너무나甚한 外部干涉은 往往 逆效果를 낼 憂慮가 있으므로 그 勸獎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集團의 道義心에 急激한 變動을 招來하지 않을 程度로 自發的인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產兒調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社會의 基盤이 없는 限 결코 成功할 수 없으며 또한 社會改革 내지 近代化를 指向하고 있지 않은 產兒調節運動은 자칫하면 도리어 事態를 惡化시킬 것이다. 하여간 國民의 大部分을 封建的인 無知狀態로 固定시키거나 또는 個人의 獨立과 自由가 阻害된다는 狀態가 存續되는 限 產兒調節은 결코 圓滑하게 機能하지는 못한다.

끝으로 家族計劃 指導要員은 民主的인 指導, 科學的인 指導, 奉仕的인 指導 先憂後樂의 精神으로 指導하여야 하겠다.

## 〈Summary〉

## Economic Developemnt and Problems of Human Population in Korea

——Viewed from the Angle of The Family Plan——

by

Moo-Dal Sang

(Asso. Prof.  
Taegu College)

Korea's current population explosion is viewed as a serious problem to the continued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Especially unsettling is the ever increasing gap between food production and consumption requirements. Although the problem of pupulation growth is not unique to Korea, it is one that has assumed the role of a dominant universal challenge, and as a historical mission requiring solution in our time.

If the present annual birth rate continues at the acknowledged rate of 2.88%, the population of Korea shall have reached 30 million by 1967. Ten years later it will surpass 40 million, and by 1985 the population will have zoomed to 50 miller souls.

It is a truism that Korea's present per capita income is a mere \$ 78.00 (as compared to \$ 3,221 of the US). If the national economy is not realistically adjusted to meet the anticipated 50 million population of 1985, the lot of the masses will reflect even greater deprivations. In other words, if rapid population growth is not accompanied by a per capita income escalation, the annual average(\$78.00) buying power of today will have to be spread proportionately among 50 million wage earners. This would result in an unacceptable sub-human standard of existence.

Even with the present birth rate, Korea's production would have to be quadrupled in order to double the present per capita income by 1965 with its 50 million people. Even if this four-fold increase is achieved it is not indicative of a compatible economic upswing in the light of the following facts. The Phillipines and Ceylon, although categorized as backward countries, attained a per capita income of \$ 152.00 and \$ 137.00 respectively by 1958. In contrast, Korea does not forsee the realization of a per capita income goal of \$ 158.00 before 1985; twenty years hence. Therefore it is felt that a realistic effort must be mad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increased emphasis in population control. It has become essential for Korea to develop a birth control plan. Such a plan must be given much thought and, when adopted, include cultural and ethical aspects. The plan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our noble ideology on new births and also our loved ones who pass away.

In conclusion, it is evident that if we are going to resolve this serious problem, a birth control plan must be implemented. However, such a plan must include a scientific approach, be democratic in spirit, and carry with it a message to the people that it is necessary and vital for their future happiness.